

# 오늘의 주요기사

2022 11 11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2,138	가	...	...	1	
江原日報			2,138	가	...	...	2	
江原日報			2,138	가	...	...	3	
江原日報	01	22	2,138	가			4	
江原日報	03				...	...	5	
강원도민일보	01				8 7758	...	6	
강원도민일보	03				'	'...	7	
G1방송		-			," 9	?"	8	
NEW DAILY		[ ]				...	9	
news 1							10	
MoneyS		[ S ]				...	11	
江原日報	05					...	12	
江原日報	03				“ vs “	...	13	
강원도민일보	03				" vs "	...	14	
강원도민일보	05				,		15	
춘천MBC						...	16	
KBS 춘천							17	
G1방송							18	
연합뉴스						...	19	
강원도민일보	03				"	"	21	
강원도민일보	02						22	
江原日報	03				“ ‘ , ”		23	
강원신문					, 15	17	...	24
강원신문					, 15	17	...	25
江原日報	20						26	
강원도민일보	15				,	...	27	
강원도민일보	01				2		28	

강원도민일보	02		4	... 5	70...	29
江原日報	04			4		29
 KBS 춘천			,	4 1,428	...23...	30
강원도민일보	19	[ ]			...	31
강원도민일보	19	[ ]	,			32
江原日報	24	[ ]				33
江原日報	24	[The ]			‘ ’가 ...	34

# 江原日報

## 내년 국비 2,138억 추가 확보하라 ...강원도 총력전

강원도-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10일 국회서 간담회  
정부예산안 8조7,000억원에 더해 증액 반영 요청  
'레고랜드 사태'로 여야 의원 날선 공방 주고 받아



김진태 강원도정과 강원국회의원협의회(회장:권성동)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비확보 대책 간담회'를 열고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강원도 주요현안 국비확보를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강원도가 내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지역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국비가 마련돼야 진행될 수 있는데다 김진태 도정의 핵심 공약 추진도 국비 확보 여부에 달렸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권성동)와의 '강원도 국비확보 대책 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22개 사업 2,138억원의 추가 확보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국비 중 SOC사업 분야는 춘천~속초 고속철도(932억원) 강릉~제진 철도(672억원) 포천~철원 고속도로(5억원) 속초~고성 고속도로(5억원) 광덕터널 도로(7억원) 춘천 서면대교(50억원) 국지도 86호선(동막~개야)도로(48억원) 등 7개 사업이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김진태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30억원)을 비롯해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30억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20억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22억원) 등이 포함됐다.

江原日報



도는 또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조성(100억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 구축(45억원) 등 15개 사업 419억원에 대해 신규 및 증액 반영을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758억원이 반영된 것에 이어 증액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이 조기에 투입돼야 임기 내 완공할 수 있고, 반도체 교육원도 강원도 핵심 미래전략 사업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강원도지사도 "주요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원도 국회의원들께서 이 같은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강원도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권성동(강릉)협의회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정·강원도의회가 변경된 이후 첫 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반갑다"며 "강원도정 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오로지 강원도당만 있을 뿐이다. 강원도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박정하(원주갑), 더불어민주당 송기현(원주을)·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렬 경제부지사, 실·국장, 국민의힘·민주당 도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김진태 지사는 국회 소통관 3층에서 '강원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예산 추가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 江原日報

2022 11 11 (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0일 국회 소통관 3층에 '강원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마련, 국비 확보에 총력에 나섰다. 왼쪽부터 김명선 행정부지사, 권혁열 강원도의장, 김진태 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초실장.

# 22개 사업 국비 2,138억 추가확보 총력전



강원도청 제공

**국비 확보 머리 맞댄 도-국회의원** 강원도-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국비 대책 간담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성동·한기호·허영·송기현·박정하·이양수·유상범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가 내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지역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국비가 마련돼야 진행될 수 있는데 김진태 도정의 핵심 공약 추진도 국비 확보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권성동)와의 ‘강원도 국비확보 대책 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22개 사업 2,138억원의 추가 확보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 관련기사 3면**

도가 요구한 국비 중 SOC사업 분야는 △춘천-속초 고속철도(932억원) △강릉-제진 철도(672억원) △포천-철원 고속도로(5억원) △속초~고성 고속도로(5억원) △광덕터널 도로(7억원) △춘천 서면대교(50억원) △국지도 86호선(동막~개야) 도로(48억원) 등 7개

## 도-도국회의원협 대책 간담회서 여야 초당적 협력 다짐 춘천~속초 고속철도·반도체 교육센터 등 현안사업 추진

사업이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김진태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30억원)을 비롯해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30억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20억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2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도는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조성(100억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 구축(45억원) 등 15개 사업 419억원에 대해 신규 및 증액 반영을 요청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758억원이 반영된 것에 이어 증액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이 조기에 투입돼 임기 내 완공할 수 있고, 반도체 교육원도 강원도 핵심 미래전략 사업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도의장도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원도 국회의원들께서 이같은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강원도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권성동(강릉) 협의회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정·강원도의회가 바

뀐 이후 첫 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반갑다”며 “강원도정 발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오로지 강원도 당면 있을 뿐이다. 강원도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박정하(원주갑), 더불어민주당 송기현(원주을)·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김명선 행정부지사·정광열 경제부지사, 실·국장, 국민의힘·민주당 도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김진태 지사는 국회 소통관 3층에서 ‘강원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예산 추가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2 11 11 ( )  
03

예산 초당협력 다짐에도 ... 레고랜드 사태엔 날선 공방

도-국회의원 간담회

민주당 '김 지사 책임론' 비롯  
전임 지사 고발 등 규탄 발언  
與 "예산 논의 집중"으로 맞서

강원도와 강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2023년도 국비확보 대책 간담회 초반부터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없이 강원도당으로 통쳐야 한다"는 다짐을 무색게 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2023년도 국비확보 대책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포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가 대한민국 전체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는데 국민을 향한 김진태 지사의 진솔한 사과가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이 최문순 전 도지사에게 '레고랜드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그는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논의해야 하는 날에 전임



간담회 후 굳은 표정으로 악수하는 김진태 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 국비확보 대책 간담회에 참석 후 간담회장을 나서며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지사에게 대한 고발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분위기가 얼어붙자 권성동(강릉·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강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자 리이니 발언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지난 최문순 도정이 11년간 강원도를 이끌어오면서 공도 있을 것이고 과도 있을 것"이라며 "(레고랜드 사태는)과오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잘못을 털어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고민한 끝에 이 같은 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김진태 도정을 감쌌다. 또 의원들을 향해서도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들도 뭐가 진실인지 명확하게 파악해 방어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날 선 발언들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은 강원도의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으로 불거진 채권시장 혼란에 대해 "신중했어야 했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추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최문순 전 도정에서 잘못된 일이 많았어도 국비 확보 논의할 때만큼은 아담이였어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예산 확보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허영 의원은 주요 현안 사업에 오른 '정선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언급하며 "춘천 의암호를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던 정선의 국가정원 협조 요청이 들어가 있다"며 "김 지사도 선거 당시 춘천 국가정원에 대해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공격했다.

김진태 지사는 "춘천을 안 하겠다 는게 아니라 정선은 산림청에서 지정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춘천도 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1 ( )  
01

### 강원도 내년도 정부예산 8조 7758억원 원안 사수 협력

#### 도-도국회의원협 대책 간담회

강원도와 강원도 정치권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국회의원협의회(회장 권성동)와 강원도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도·도국회의원협의회 국비 확보 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7758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도와 도정기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원안 사수와 함께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주요 현안 사업의 신규 반영 및 증액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춘천~속초(932억원)·강릉~제진(672억원) 철도

△국지도 86호선(동막~개야) 도로(48억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30억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21억 5000만원) 등 SOC 사업을 비롯한 22개 현안 사업을 국회 예산심의를 서신규 및 증액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진태 지사는 "이제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정부안에 담긴 예산을 잘 지키고, 신규 반영 및 증액이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살뜰히 챙겨야 할 때"라며 "도국회의원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권혁열 도의

장은 "고유가·고물가 경제 위기 등으로 예산 확보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모두가 윈윈을 이뤄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은 "강원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 오로지 '강원도당'만 존재할 뿐"이라며 "강원도가 구상하고 있는 발전 방안을 세밀히 청취하고, 강원도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 '강원도 국비 확보 종합 상황실'을 열었다. 이세훈 ▶ 관련 기사 3면

2022 11 11 ( )  
03

# 강원도민일보

## 여야 원팀 결의 속 '레고랜드 사태·최 전지사 고발' 신경전

국회서 도·국회의원협 첫 간담회  
민주 "금융위기 단초 김지사 제공"  
국힘 "오늘은 국비확보 논의 자리"

10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 도정과 강원국회의원협의회의간 첫 정책간담회에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 협력에 대한 원팀 결의가 이어졌으나 '레고랜드 쇼크 사태', '최문순 전 도지사 배임 혐의 고발 건' 등을 놓고 여야의원들간 신경전이 벌어지며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문순 전 지사가 '레고랜드 배임 의혹'으로 국민의힘 도의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민주당 '김진태발(發) 진상조사단'으로 활동 중인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초당적 협력을 논의하는 날에 전임 지사가 고발 조치됐다"며 "대한민국 금융위기의 단초는 김 지사가 제공했다. 그럼에도 김 지사는 국민



강원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의(회장 권성동)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확보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세훈

들에게 진술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지사를 공개 저격했다.

특히, 허 의원은 이날 간담회의 주요 현안으로 포함된 '정선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들면서 "춘천 의암호 국가정원 사업은 나 뿐만 아니라 김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차원의 도움이 없는 것은 당이 다르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선은 산림청에서 먼저 지정을 받은 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춘천은 당장의 조성 조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선군수님도 민주당 소속이다. 춘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현(민주당·원주을)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저격성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김 지사와 만남에 있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김 지사와는 간단히 약속만 하고 지나쳤으나 곧바로 도청실·국정들과 만나 선웃으며 안부를 묻는 등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허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레고랜드 쇼크 사태 등을 거론하자 권성동(국민의힘·강릉) 협의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소속 김 지사 방어에 적극 나섰다.

권 협의회장은 "전임 도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말이나 오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하면 강원도 재정을 튼튼히하고, 잘못된 점들을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같은당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도 김 지사에 대한 사과 요구 등 날선 발언을 나선 허 의원을 향해 "오늘은, 국비 확보를 위해 마련된 자

리다. 지적은 다음에 하시라"며 김 지사를 옹호했다.

또, 권 의원은 허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일을 하다 보면 국회의원과 강원도의 생각이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내밀하게 만나 깊은 대화를 통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리에 나섰다.

김진태 도정과 도국회의원협의회의간 이날 첫 자리는 정파별로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레고랜드 파문 이후 국회를 찾은 김 지사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첫 간담회에는 권혁열 도의장도 함께 참석, 국비 확보 협력에 힘을 모았으며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 마련된 강원도 국비 확보 종합 상황실을 방문해 커피 세트를 제공하며 도청 국비전략팀을 격려했다.

또, 도출신 노용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만나 강원도 및 춘천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

G1방송

도-국회의원협의회, "국비 9조원 시대 여나?"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강원도와 도 국회의원들이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잠시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국비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porter]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강원도 국비는 8조 7천 7백5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강원도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강원도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반에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상이한 입장 표명으로 긴장감이 감돌긴 했지만, 이내 정리되면서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강원도가 국비 추가 확보를 요청한 사업은 모두 21개, 금액으로는 2천 백 38억 원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5년 내 조기 완공을 위해선 초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며, 9백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또 대표 공약이자,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에 위한 예산 반영도 부탁했습니다.

[인터뷰]

"한국 반도체 교육센터 이것은 앞으로 강원도의 핵심 미래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말 핵심 사업입니다. 예산이 증액사업으로 담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와 춘천 서면대교 건설, 그리고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과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예산도 적극 요청했습니다.

도 국회의원들은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도의 사업이나 예산에 관해선 여야가 없습니다. 오로지 강원도당만 있을 뿐입니다. 강원도의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에 이런 호기가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비 추가 확보 여건은 최상입니다.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 격인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이철규 의원과 송기현 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 예산을 주무르는 기재부 김원섭 예산실장과 안순헌 지방재정팀장도 도 출신이어서,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내년에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는 강원도가 국비 9조원 시대까지 열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NEW DAILY

# [포토]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국비확보 대책 간담회



권성동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의원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국비확보 대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ljh@newdaily.co.kr)



### 강원도, 국회 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 현판식.(강원도 제공) 2022.11.10/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김진태 강원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에는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한다. 이들은 도와 관련된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진태 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 현판식.(강원도 제공) 2022.11.10/뉴스1

MoneyS

2022 11 10 ( )

## [머니S포토] 간담회 앞서 논의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과 권혁열 의장

장동규 기자



김진태(오른쪽) 강원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도·국회 의원협의회 국비확보 대책회의'에 참석해 권혁열(가운데) 강원도의회 의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 江原日報

2022 11 11 ( )  
05

### 이번엔 레고랜드 사업 관련 최문순 전 지사 고발 당해

속보=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알펜시아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본보 지난 8일자 1면 보도)된데 이어 이번에는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 도의원은 10일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 내용은 딸린사에 대한 중도개발공사의 800억원 지원, 도의회 의결 없이 추진된 2,050억원 채무보증 확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다수의 부지를 임대 매수 후 다시 고가로 매도한 부분 등이다. 모두 기존에 도의회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다. 신하림기자

# 江原日報

2022 11 11 ( )

03

## 민주 “치졸한 정치 보복 vs 국힘 “수사로 책임 물어야”

### 최 전 지사 경찰 고발 관련 양당 도당 논평 통해 설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최문순 전 도지사에 대한 모욕주기식 정치 고발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도당은 10일 논평에서 “10일 국민

의힘 박기영 도의원이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며 “더구나 이날 국회에서 강원도와 국회의원협의회의 내년도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리는 시간에 고발했다. 앞에서는 웃으며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뒤로는 모욕주기식 정치 고발하는 게 국민의힘과 김진태 도지사가 도민께 약속한 협치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최근 금융위기를 불러온 김진태 지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략적·정치적 고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고발 내용들도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고발이 있었고 경

찰조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임에도 반복해서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고 반격했다. 도당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번에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과 관련한 각종 비위로 또 다시 고발된 만큼 수사 당국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게 됐다”며 “혐의가 입증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원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1 ( )  
03

## 최 전지사 고발에 여 “엄정한 수사” vs 야 “정치적 고발”

### 국힘 박기영, 배임 혐의 고발장 제출

국민의힘 박기영(춘천) 의원이 최문순 전 지사를 레고랜드 사업 배임 의혹 등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도내 여야가 “정치적 고발”(민주당), “엄정한 수사”(국민의힘)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김우영)은 10일 논평을 내고 “박 도의원의 고발은 최근 나라 전체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김진태 지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략적, 정치적 고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고발 내용들도 경 찰조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 결된 사안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 임에도 반복해서 고발을 하는 것은 정치 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 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유상 범)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매각 ‘입찰 방해’ 혐의와 함께 춘 천 레고랜드 조성과 관련한 각종 비위로 고발됐다. 수사당국에서는 엄정한 수 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고, 혐의가 입증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 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설화

▶ 관련기사 5면



국민의힘 박기영(춘천) 강원도 의원은 10일 강원경찰청 민원실에서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게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 박기영 의원, 최 전 지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당 아닌 개인 차원” 정치해석 견제

속보=평창알펜시아리조트매각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송치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본지 11월 8일자 5면 등)가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 강원도 의원은 1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최 전 지사를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으로 도의회 의결을 거청야

함에도 최 전 지사가 의결 없이 강원도에 2050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해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도가레고랜드 관련 사업부지를 GJC로부터 영가매수 후 다시 GJC 측에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게 하면서 강원도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지사와 강원도청 공무원 1명, KH그룹 관계자 1명 등 총 3명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춘천지검에 송치했다. 구본호

춘천MBC

2022 11 10 ( )

## 최문순 전 지사,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등 고발 당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기영 도의원은 고발장에서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백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면서 중도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레고랜드를 다시 멀린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 수익률도 3%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배임과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최문순 전 도지사에게 대한 고발한 건은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반복해서 고발하는 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송미

2022 11 10 ( )

KBS 춘천

## ‘최문순 전 지사’ 경찰에 고발 두고 양 당 성명전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이 오늘(10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한 것을 두고 양 당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의 고발은 "최근 금융기위를 불러온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략적, 정치적인 고발" 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통해 최 전 지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번에는 레고랜드 관련 비위로 또다시 고발된 만큼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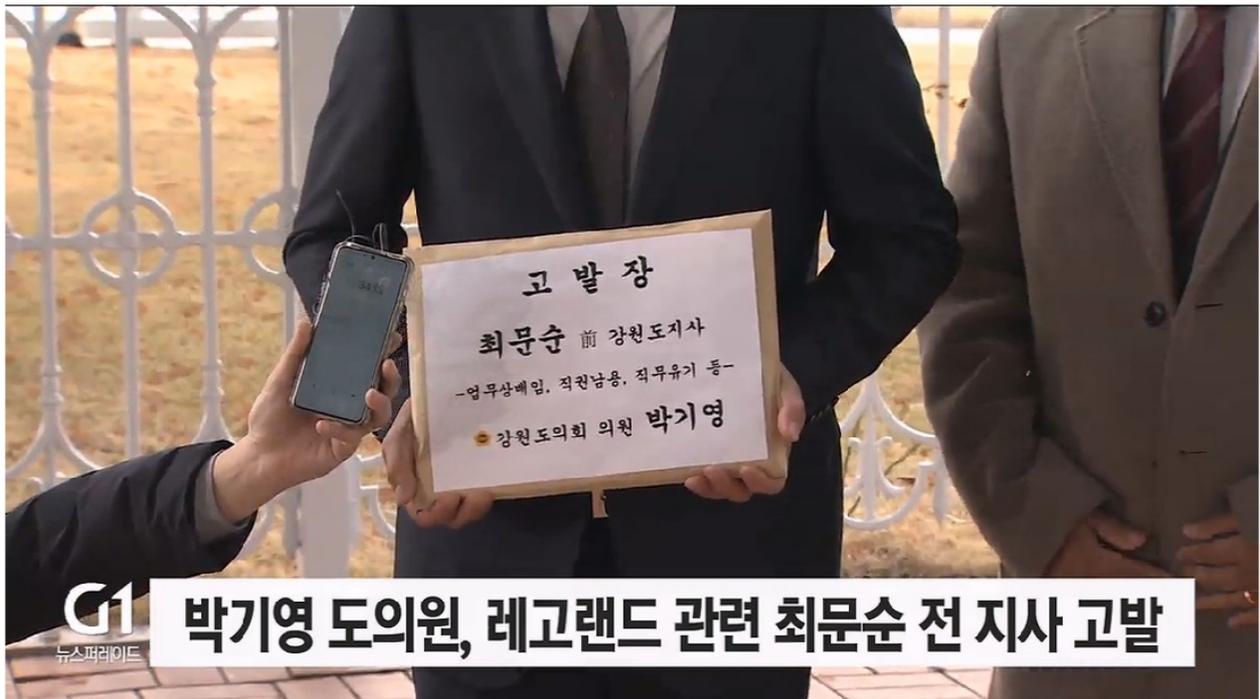
고순정

2022 11 10 ( )

G1방송

## 박기영 도의원, 최문순 전 지사 배임 혐의 등 고발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국민의힘 박기영 강원도원이 오늘(10일) 최문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도원은 강원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레고랜드 사태는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수사당국에서 엄정히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고발 내용은 이미 시민단체 고소고발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전직 도지사에 대한 모욕주기"라고 규정했습니다.

# 박기영 강원도의원, 최문순 전 지사 배임·직권 남용 등 고발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 확대·불공정 토지거래 등 주장



박기영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여야 간 전·현 강원도정 책임론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급기야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강원도 의원은 10일 최문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도 의원은 고발장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 사업 완성을 위한 자원 수천억원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최 전 지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는 재산상 이익을, GJC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800억원 송금 대가로 유무형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자산을 취득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대수익이 애초 30.8%에서 3%로 축소되면서 막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게 됐다"며 "이들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도 의원은 최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 27일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재정법상 필수적인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강원도가 2천50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했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가 GJC에 레고랜드 사업 부지를 저가에 판 뒤 다시 GJC로부터 고가에 사들임으로써 강원도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동시에 GJC의 최대 주주인 강원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도 했다.

박 도의원은 "오늘날 레고랜드 사태는 10년간 최문순 도정의 잘못된 결정과 오기에 가득 찬 행정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다"며 "수사당국에서 엄정히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사태' 행정사무 감사

(춘천=연합뉴스) 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가 열린 가운데 송상익 GJC 대표이사(앞줄 왼쪽)와 윤인재 강원도 산업국장(앞줄 오른쪽)이 나란히 앉아 있다.

도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레고랜드 사태'의 중심에 선 GJC와 강원도의 소통 부재 문제부터 레고랜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2.11.9 [강원도의회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conanys@yna.co.kr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1 ( )  
03

### 도의회 “레고랜드 사안 도 여론대응 소홀”

대변인실 행감서 메시지 관리 질타  
특별자치도·산림엑스포 홍보 주문

강원도의회가 레고랜드 2050억원 보증 채무 문제가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등으로 여론이 확산됐다며 강원도의 메시지 관리 등 여론 대응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철원) 의원은 10일 강원도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레고랜드 사안은 정무적인 대응이 부족해서 전국에서 망신을 당하는 현실이 됐다”며 “대변인이 언론 등에 나서 도정 홍보, 특별자치도 홍보, 2023년 산림엑스포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관희(춘천) 의원도 “실·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서들의 입을 모아 총괄하는

대변인 역할이 중요하다. 기자회견의 파장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순옥(비례) 의원은 “중도개발공사 대표가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 도정이 들어선 뒤에는 보고 요청이 들어온 적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김용균 대변인은 “송상의 대표의 발언은 저희가 알기로는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했다. 엄운순(인제) 의원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 장소인) 속초 자생식물원에 가봤느냐”며 “진출입로가 단일로고, 너무 협소하다”며 현장 중심의 업무를 당부했다. 전찬성(원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 라돈 정밀조사가 있는데, 문제는 주택이 아닌 마을단위”라며 “폐암이 많이 발

생되는 지역에서 라돈 수치 등을 의심한다. 이를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래(강릉)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에 장애아동 인구가 3000명 정도 된다”며 “춘천, 원주, 강릉 등에만 (교육 기반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을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이어간다. 각 상임위는 첫 행감을 끝내고 오는 15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철화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1 ( )  
02



**도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10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서영

## “철원 김화공고 ‘국방과학기술고’로 전환해야”

### 도의회 도교육청 행감

시대 트렌드에 맞춘 특성화고 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기호(국민의힘·철원) 도의원은 10일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래된 실업계 특성화고교와 관련해 시대에 맞는 학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철원지역의 유일한 특성화고교인 김화공고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학과 전환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화공고를 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가칭)로 학교명을 개편·전환해야 한다”며 “국방과학기술과와 국방드론전자과 등의 학과를 개설하고 학급별 30여 명의 정원을 모집해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기호 의원



◇조성운 의원



◇김용래 의원

시대 변화 따른 개편 필요성 지적  
공실 발생 기숙사 공동 사용 요구  
어린이집 대한 지원 검토도 주문

이에 김은숙 교육국장은 “지역적으로나 우리 강원도 상황에 맞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된다”며 “예산 추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도교육청에서 꼭 한번 추진해 보고 싶은 학교다”라고 공감했다.

공실이 발생한 학교 기숙사의 공동 사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조성운(국민의힘·삼척) 의원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정원 대

비 입사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기숙사를 보유한 고등학교의 배타적 소유권 주장으로 지역 내 인근 학교 학생들의

이용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기숙사가 없는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공약사항 과제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보전과 관련,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래(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올 10월 2차 추경에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통과됐고 내년 2월까지 지원할 계획인 걸로 안다”며 “유아의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지원기자 ji1@kwnews.co.kr

##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15개 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박수현 선임기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 국민의힘)는 지난 9일부터, 실시한 도교육청 직속 기관 15개 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1일까지 3일간 강원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원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홍천1)은 도내 학생 수 100명 이상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있으나, 유치원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도내 유치원의 경우 교직원 성비의 불균형 보원과 유아의 보다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보안관의 배치가 절실하다.”며 공립 단설 유치원의 학교보안관 배치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 계획에 따른 강원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동해2)은 최근 괴산 지진 피해사례의 비춰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사전 안전 점검·관리 등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 내진 설계 사업의 조기 완료를 주문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맞아 타 시도와 차별되는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교육 특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강릉3)은 학생 체력 및 건강 증진은 학업 성취도 만큼이나 중요함을 강조하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각종 예산 지원이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점이 있다”며 학생건강과 관련한 사업비의 책정과 배부가 학교체육육성 사업 목적 달성과 효율성에 기반하여 운용되어야함을 지적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지원 예정인 특별활동비(원아당 10만)의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 지원 예정에 따라 학부모 혼란 방지를 위한 한시 지원 종료 후, 계속 지원 방안의 검토를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춘천2)은 지난 4월, 강원도의회에서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실적이 저조함을 질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지역물품 구매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법령 미비로 지연되고 있었으나 교육부 규정 개정으로 미비점이 보완된, 성수학원(성수고, 성수여고) 이전 신축 추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철원2)은 “내년 3.1.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는 공감하나, 도교육청 슬림화를 위한 전보 기준인 △부부 모두 도교육청에 근무 중인 경우 △혈연(사촌 등)관계가 함께 도교육청에 근무 중인 경우 △직급별 학교 근무 최소 경력의 유무로 전보 인한 직원 불만 발생이 우려되고, 일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발령 기준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면밀히 검토하여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시대 트렌드에 적합한 특성화고 개편을 통한 직업계고 학생 진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접경지역 특성화고인 김화공업고등학교의 가치(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남북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작 지원한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다큐멘터리'의 취지는 공감하나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북한 미화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북한 관련 콘텐츠 사업 추진의 경우 도내 접경지역 주민의 마음을 고려한 신중한 제작을 당부했다.

또한,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운영 용역업체인 '설악문화연구회'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보다 적합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삼척1)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정원대비 입사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일부 기숙사 보유 고등학교의 배타적 소유권 주장으로 지역 내 인근 학교 학생들의 기숙사 이용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실이 발생한 기숙사의 지역 내 학생 공동 사용 방안을 마련하여 기숙사 미보유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 공약 사항인 삼척고등학교 이전 추진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박길선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원주1)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은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교육위원회의 준엄한 질책이 새로운 특별자치도 시대, 더 나은 최고의 미래 강원 교육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선임기자 gwnews@hanmail.net

# 江原日報

2022 11 11 ( )  
20



**동해시 아이파크 경로당 개소식** 동해시 이도동 아이파크 경로당(회장: 박효기) 개소식이 10일 심규언 시장, 이동호 시의장, 최재석 도의원, 최명관 시의회 부의장과 최이순·민귀희 시의원, 최종수 노인회 시지회장, 김원오 동해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열렸다.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1 ( )  
15

### 평창군재향군인회, 안보공원서 고 예비군 김진화 비 제막

평창군재향군인회(회장 지규태)는 10일 제70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해 미탄면창리 해병대안보공원에 서 고 예비군 김진화 비 제막식을 가졌다.

고예비군 김진화는 평창군 미탄면 출신으로 지난 1968년 울진 삼척지

구로 침투, 미탄지역으로 들어온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해 28세의 나이에 전사했다. 평창군은 고 김진화 예비군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미탄면 창리에 고 김진화 추모 해병대 안보공원을 조성, 추모비와 전적비, 전투상황비, 장갑차 2대, 휴게공간 등을 설치했고 이날 비 제막식을 가졌다. 제막식에는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 지광천 도의원, 전민하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부총재 등이 참석, 고인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렸다.

신현태

2022 11 11 ( )  
01

##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청 신청사 최종후보지 내달 2곳으로 압축

부지선정위, 이달말 4차 회의  
출천 내 4곳 대상 1차 현장실사  
법조타운 이전 무산 연계 관심  
검, 도청사 이전부지 신축 검토

속보=강원도가 이달 말, 도청 신청사  
건립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1차 현장  
실사(본지 11월3일자 2면 등) 후, 12월  
중 최종후보 부지를 2배수로 압축하는  
등 도청사 신축부지 연내 결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더욱이 국방부가 출천지  
법이 추진 중인 이전 후보지에 대한 부  
분매각을 거부한데다 출천지검은 도청  
사 신축부지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도청사 이전논의는 한층 복잡하게 꼬  
일 가능성이 커졌다.

도청사 부지선정위원회는 이달 말 4  
차 회의를 열고, △근화동 옛 캠프에이  
지△동면장학리 노루목저수지△우두  
동 옛 농업기술원△다원지구 등 동내면  
일원 등 4곳 부지에 대한 1차 현장실사에  
나선다. 출천시가 도에 후보지로 제시한  
동내면 일원은 다원지구 인근의 고운·  
신촌·학곡·거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봉의동 현 청사 부지도 후보  
지이지만 현장실사에선 제외됐다.

현 청사 부지는 도유지, 옛 캠프에이  
지 부지는 사유지라는 장점이 있으나  
면적은 협소하다. 현 청사 부지는 5만  
1600㎡, 캠프에이지는 6만㎡ 정도다.  
도는 장래확장성 등을 고려해 신축 부  
지면적은 8만~9만여㎡ 규모가 적합하

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청사부지 신축  
시 최대 단점은 임시청사 건립 및 이사  
에 따른 매몰비용이 700억원 가량 발생  
한다는 것이다. 노루목저수지(10만  
㎡)는 규모면에선 적합하지만 농어촌  
공사 소유로, 저수지를 메우는 데만 70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유  
지인 옛 농업기술원 부지(13만㎡)는  
강북에 위치,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신  
축교량 건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원  
지구(54만2800㎡) 부지면적은 후보  
지 중 가장 넓지만, 지구개발계획상 공  
공용지가 없어 개발계획수정, 토지 매  
입비가 필요하다.

출천지검과 출천지법의 출천 석사동  
법조타운 이전이 무산되면서 도청사  
이전부지와 어떻게 연계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천지검은 도청사 이  
전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출천시는 법원 요청으로 석  
사동 부지의 부분매각을 국방부에 요  
청했으나 국방부는 전체 매각을 고수,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출천지법  
의 단독이전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결국 도청사 신축 부지가 어디로 결  
정되느냐에 따라 출천지법·출천지검  
청사 이전 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관계자는 “국공립유지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들지는 않으나 유류  
부지를 활용할 기회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종  
합적으로 따져 연내 최적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환·구분호

2022 11 11 ( )  
02

# 강원도민일보

## 도교육청 본예산 4조원 시대... 5대 정책 추진에 7000억원

전년비 23% 늘어 7773억원 증액  
5대 정책 72% '진로분야' 최다  
안정화 기금 5100억원 추가편성

강원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이 4조원을 넘어섰다.

10일 강원도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은 4조1428억원으로, 전년도(3조3655억원) 대비 7773억원(23.1%) 증가한 규모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7057억원을 확보했고 지자체 이전수입 537억원을 더해 예산 규모를 늘렸다.

본예산만으로 4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2조5609억원이었던 도교육청 본예산은 2019년 3조414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본예산 3조원을 달성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한 해 동안 8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늘었다.

내년도 본예산 가운데 강원 교육 5대 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총 7032억원이다. 항목별로는 더높은학력 211억원, 더 넓은 진로 5083억원, 더 바른 인성 71억원, 더 고른 복지 1657억원, 더 돕는 행정 10억원 등이다.

5대정책 가운데 신교육감이 가장

중요하고 있는 학력 부분에서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60억원을 투입해 도내 초·중·고 647곳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유학기·연계학기 운영학교를 지원한다. 작은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브랜드(18억원), 기초학습지원단 운영(18억원), 초등학교교사제 운영(27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내년도 강원 학생성장진단평가 추진을 위한 3억원과 강원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연구 용역 등을 위한 예산 1억 3900만원도 책정했다.

7032억원의 5대 정책 예산 가운데 72.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진로 분야에는 도내 학교 558곳에 대한 시설개선(3655억원)을 비롯해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1108억원) 등이 담겼고, 신산업분야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97억원), 직업계고 학과개편교기자재(54억원),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비(30억원) 등 직업계고 관련 예산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향후 교부금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추가로 5100억원 편성한다. 해당 기금이 추가되면 도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총 1조50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정민영

더높은학력(211억원)	소인수 맞춤 교과보충 초등 협력교사제 기초학습지원단	60 27 18
더바른인성(71억원)	초등 생존수영 교육 학교육성중독 지원	28 18
더넓은진로(5083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직업교육지원센터 학과개편교기자재확충	3655 1108 97 54
더고른복지(1657억원)	학교 신중설 기관 시설 유지관리 학교 급식환경 개선	836 275 245
더돕는행정(10억원)	학부모 동아리	5

# 江原日報

2022 11 11 ( )  
04

##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4조원 편성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기초학력 향상 및 대입 진학 지원 등을 위해 211억원이 투입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사상 최초로 본예산 기준 4조1,42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 11일 강원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조3,655억원보다 7,773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60억원을 비롯해

강원 학생성장진단평가 3억원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책임교육 실현 분야와 강원 진학지원센터 및 진학전문지원관 운영 13억원 등이다. 신교육감의 역점 시책인 기초학력 향상과 대입 진학 지원 역량 강화에 211억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제315회 강원도의회(정례회)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명우기자

2022 11 10 ( )

KBS 춘천

## 강원도교육청, 내년 예산 4조 1,428억 원 편성 ...23.1% 증액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1,4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조 3,655억 원보다 23.1%인 7,773억 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진로 분야에 5천억 원, 복지 분야 1,657억 원, 학력 분야 211억 원, 인성 분야 71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내일(11일) 강원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초희

삼토사상과 원주에서 시작된 농업인의 날

금요산책

신동훈  
원주축협 조합장



흙을 나타내는 한자어는 ‘토(土)’다. 땅 위 흙무더기를 본떠 만든 상형자다. 그리고 땅 위에 새싹이 돋은 모양을 본뜬 한자는 ‘생(生)’인데, 동양에서는 흙을 만물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근간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세상 모든 만물은 바람, 불, 물, 흙의 4개 원소로 이뤄졌다고 생각했다. 동서를 막론하고 흙이 인류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로 본 것이다.

농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2012년 세계식량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세계 식료 생산은 2005~2007년 평균에 비해 2023년 40% 이상, 2050년 70%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농업의 중요성이 지구 차원에서 부각되면 서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농업인의 역할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식량 자급률이 2020년 기준 45.8%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다. 예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을 치국의 근간으로 삼고 농업을 장려

해왔다. 과거 왕조시대의 백성이라 함은 곧 농민과 동의어이기도 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국 10위권 내의 경제를 자랑하는 공업국가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농업과 농촌은 한국인의 정신적 본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업인의 날은 1973년 어민의 날(4월 1일), 권농의 날(6월 1일), 목초의 날(9월 5일)이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로 통합 운영되어 왔다. 그러다 1996년 5월 30일 권농의 날이 폐지, 정부에서 농업이 국민경제 근간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사실 농업인의 날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도 더 이전인 1964년 원주에서 시작됐다. 출발은 당시 농사개량구락부 원성군회장과 도연합회장직을 맡고 있던 고(故) 원흥기씨(원주축협 9~10대 조합장 역임)이다. 그는 평소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민 고유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삼토사상을 이념으로 삼아 평생 농업인으로 살아왔다. 원흥기씨는 원주지역 농민자생단체를 결집해 1964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농민 870여명과 농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11은 한자로 십(十)과 일(一)이 합쳐져 ‘흙토(土)’자가 되는데, 이는 농민 일생을 상징하는 삼토사상을 의미한다. 첫해 행사 이후로 각 지방에 들

불처럼 번져나갔는데,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1996년 드디어 법정기념일이 됐다. 원주에서는 올해로 제64회 농업인의 날이 개최되는 셈이다.

원주축협은 축산전문 농협이지만 삼토사상과 농업인의 날 발상 조합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쌀농사에서 나오는 벼짚을 한우에게 주고 그 배설물의 부숙을 통해 다시 논에 환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의 환경문제 해소와 장기적 지력 회복은 물론, 미질이 좋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다. 축산의 ‘축(畜)’자는 검은현(玄) 아래 밭전(田)으로 이뤄져 있다. 축산업은 가축을 사육하면서 생기는 배설물을 땅에 환원함으로써 화학비료, 농약 등으로 약화된 지력 회복 등 친환경적 자연순환농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기회에 축산 분뇨를 통한 농촌 지력 회복을 위한 축산업과 재배농업에 정부의 적극적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을 호소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우리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식료 생산, 지구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인 역할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농업과 농업인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농업인의 날이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국민적 축제일로 발전 승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2 11 11 ( )  
/ 19

### 정부, 접경지 군납 현안 조기 해결을

-내년 수의계약비중 아직 안 밝혀 농업인 피해 우려

접경지역 농가들이 군납 경쟁조달체  
계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 수의계약비율 조정  
에 대한 계획조차 밝히지 않아 농업인  
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영농  
규모와 작목을 정해야 하는 농가들  
은, 정부가 조속히 입장을 내놓아야 한  
다고 호소합니다. 이미 경쟁 입찰에 따  
른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비율 결  
정마저 지연된다면 접경지 농가가 심  
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강원도는 수의계약 '100% 원상복  
구' 또는 현재 수의계약 비중인  
'70% 유지'를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  
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  
난달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접경지  
역 군급식 수의계약 물량을 70%로 유  
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  
방부는 아직 내년도 수의계약 조정과  
관련,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  
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약속  
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과 관련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접경지역 농가들은 속앓  
이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군납  
농축산물 공급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  
간보다 약 20% 감소했습니다. 경쟁조

달체계 도입에 따른 접경지역 농가 피  
해가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당초 국  
방부 방침대로라면 내년도 수의계약  
비중은 50%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군  
납 농가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게 됩  
니다.

더구나 올해 7월부터 군 급식에 완  
제품 김치만 보급하게 되면서 배추·  
무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  
다. 배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기존의  
'임가공 김치' 납품 방식은, 계약 재배  
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합  
니다. 하지만 완제품 납품 방식으로 전  
환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  
매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  
습니다. 납품 단가 역시 절반 이하로  
급감해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군납 문제는 이전 정부부  
터 수년째 접경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  
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  
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  
다. 필요하다면 농업인을 비롯한 관계  
자들과 밤샘 토론이라도 벌여 빨리 문  
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호한 입장에  
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됩  
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접경지 농가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江原日報

2022 11 11 ( )

24

## 스포츠는 스포츠로만

기자 칼럼 **신호등**



**권순찬**  
문화체육부 기자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팬’이다. 팬을 끌어모으는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순수함’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 공정한 룰에 따라 순수하게 선수의 노력으로만 결정되는 드라마틱한 결과에 팬들은 열광한다. 이는 반대로 외부의 개입으로 스포츠가 순수함을 잃는 순간 팬들이 떠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강원FC의 열렬한 팬인 강원도민들도 당연히 ‘축구 그 자체’에 열광한다. 하지만 최근 강원FC는 축구 외적인 문제로 뜨겁다. 강원도가 지난달 31일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구단 대표이사 변경이 스포츠의 순수함을 해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이번 결정을 팬들이 ‘정치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강원FC의 구단주는 강원도지사다. 팬들은 이 대표를 전 도지사가 임명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팬들은 명장 최용수 감독 영입, 파이널A 진출, 각종 스폰서 유치 등을 이뤄낸 이 대표를 ‘강원FC 역사상 최고의 대표’라고 표현한다. 무엇보다 직접 만나 본 이 대표는 오로지 강원FC의 발전만 도모하는, 팬들이 원하는 ‘축구 그 자체의 순수함’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었다. 당연히 팬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포터즈 ‘나르샤’는 재계약 축구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팬 1,004명의 온라인 서명 동의서를 도에 전달했다.

축구에서 구단주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유럽 명문 구단을 추락시킬 정도다. 2014년 스페인의 명문 클럽 발렌시아를 인수한 싱가포르 사업가 피터 립은 축구 경영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음에도 지나친 간섭으로 명문 클럽을 망쳐냈다. 2015~2016시즌 중반 그는 지도자 경력도 전무하지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 거리 네빌을 감독 자리에 앉혔고, 네빌은 리그에서 3승5무8패의 처참한 성적을 남기고 떠났다. 이후에도 팀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였던 다니 파레호를 지역 라이벌 비아레알에 저렴한 이적료로 넘기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수차례 저질렀다. 2000년대 초반 두 차례나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발렌시아는 올 시즌 현재 12위로 순위가 곤두박질쳤다.

도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도지사이지만 축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구(어쩌다 구단주)’에 불과하다. 올 9월 강원FC가 극적으로 파이널A에 진출했을 당시 도는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를 발표하며 잔칫상에 제대로 재를 뿌렸다. 구단 운영 이해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다 보니 이 대표 재계약 여부 결정에 축구적인 관점을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이 와중에 도는 도의회 감사에서 내년 강원FC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축재정 중이기에 향후 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스포츠인 축구에서 돈은 곧 실력이다.

도 지원이 줄어들면 프로 구단인 만큼 강원FC가 스폰서 유치 등 자체적인 수익을 늘려 나가야 한다. 참고로 강원FC는 올 10월 기준 지난해보다 MD 수익이 107% 증가했고, 신규 스폰서는 지난해보다 3개 많은 10개를 유지했다.

강원권 고속도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The 초점



신용석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전담 TF 별도 구성  
11대 위험요소 선정  
고객 안전운전 중요

올해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9개월 만에 고용노동부에 156건이나 입건돼 올 한 해 기업들에게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일컫는다. 또 중대 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강원권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기에 이와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ZERO(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고속도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올해 가장 논란이 됐던 중대산업재해 사례인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작업장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원권 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했다.

또 설계에서 공사까지 단계별 작업장 안전관리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설계 단계에서는 선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필요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공사 단계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 필수 안전 정보를 전파, 모든 근로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필수 안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필수 업무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공사(용역) 업무절차서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전 전담 감리원을 투입해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 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활동 우수근로자 포상 및 안전신문고 제도를 마련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권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1,513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중대시민재

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중 ‘11대 위험요소’를 선정, 예방적 점검 및 보수·보강 등 집중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역주행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역주행 발생 지점(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진출입로 등)에 트라아트나 3D 야간 조명을 활용한 역주행 알림 표시, 역주행 감지 시스템 경보 강화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집중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고속도로 작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이 없다면 결코 안전 사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고속도로 공중이용시설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신고와 제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특히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 차단 구간을 통과할 경우 도로전광판(VMS), 공사 중 안내표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